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20
vol.209



Alhambra, celebrating luck since 1968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OTTEGA VENETA





1968년 탄생한 알함브라 컬렉션은 메종의 시그니처 아이덴티티 사명을 초월한 행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표지 속 모델은 가로세로 27mm의 옐로 골드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을 매치하고 다이얼문을 새틴한 알함브라 워치 스톱 모델로 블루 새틴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문의 1668-1906



08

20

12 **LORD OF THE CARS** 연초부터 지구촌을 신음하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필두로 한 각종 악재가 쏟아져도 자동차업계는 크게 주춤했지 않았다. 외려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을 활발히 펼쳐면서 여전히 매력적인 신차 팔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틈새를 놓칠 리 없는 하이엔드 카 브랜드들은 자차 차별된 장점을 내세우며 마케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4 **IN THE BEGINNING** 어린이의 자유분방한 낙서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화법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과 원초적인 의식을 캔버스에 담아 온 최윤가. 사람, 동물 같은 생명체들 사물이든 가릴 것 없이 큰 눈이 달린 존재, 그리고 질서 없이 놓인 듯 모를 기호와 문자는 인류의 욕망을 수다스럽게 구현하는 그만의 조형 언어다. 시원스럽게 솟은 층고 높은 건물, 자연광이 흠뻑 스며드는 근사한 아틀리에에서 그를 만났다.

16 **STARRY NIGHT** 올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 아쓰 그랑루과 아쓰 뷔띠 룬. 가을 밤하늘을 담은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형상화한 스프링클링 세팅 등으로 시선을 모은다.

17 **ONE AND ONLY**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 매력을 지닌 두 아이콘의 만남. 알렉산더 맥퀸의 주얼 사벨 백을 선택한 배우 전지현이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18 **2020 F/W TREND REPORT** 강인한 여성을 그린 대체로운 방식과 휴머니즘적 접근, 유구한 전통의 해체를 통한 진보적 행보, 익숙한 요소를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이 함께한 2020 F/W 컬렉션. 그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 8.

20 **GIRL CRUSH** 더 이상 둘은 없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더욱 자유로워진 2020 가을, 겨울 여성 키크 컬렉션.

28 **SCENT OF MEMORY** 어떤 가을은 어떤 향기로 기억하고 싶은가? 낭만적이고 우아한 향을 품은 이 계절, 이 향기.

29 **MIDNIGHT BEAUTY** 피부 간격을 되찾아주는 자연 유래 성분을 담은 사벨의 나이트 케어 신제품 '르 리프트 크림 드 뉴'. 매일 아침 눈을 떠 화사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확인하는 기쁨을 선사해줄 것이다.

30 **FRAME FIRST** 매일매일 슬림처럼 쓰는 안경이 첫인상을 좌우한다. 안경도 스타일이다.

31 **BLUE CHARISMA** 가을의 문턱에서 느끼는 자유의 향.

32 **GENTLE TOUCH** 여러 이유로 피부가 민감한 요즘이다. 살리본, 인공향, 인공 색소 같은 유해 성분을 배제한 것은 물론 엄선한 순수 성분으로 피부를 다독여줄 제품을 한데 모았다.

33 **CLEAN SOLUTION**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특허를 받은 고주파 기술로 세심한 관리가 가능한 실크 투스웨이브를 추천한다.

34 **EDITOR'S PICK** 환절기 최적의 뷰티 컨디션을 위한 이들의 뷰티 에센셜.

ZOEY DEUTCH - DISCOVER MORE ON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209 September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FASCINATING CUTTING

대담한 아름다움을 지닌 카보숑 컷 주얼리. (위부터) 프렌드 밴드 슈타르 라피스 라줄리 핑크 골드 밴글 리우데자제(루만)의 다채로운 태양 빛을 표현한 밴드 슈타르 칼렉션. 볼륨감이 느껴지는 카보숑 컷 라피스 라줄리와 이를 감싸는 옐로 골드 링, 벨리칸트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어 매력적인 빛을 그려낸다. 1천1백34만원. 문의 02-514-3721 **블거리 블거리** **블거리** 브로치 유쾌한 감성을 담은 플라밍조 주얼리. 로즈 골드를 바탕으로 오닉스를 더했다.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한 입 배어 문 플라밍조 모양에서 자연스레 미소가 자아난다. 5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반팔리프 아메 베를리 칼라 비트윈 더 링거 링** 착용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오픈 링. 영롱한 말라카이트 보석과 화려한 라운드 다이아몬드 장식이 생기 넘치고 기쁜 줄은 애-차름 전한다. 9백만원대. 문의 1668-1906 **피아제 포제션 펜던트 네크리스** 카보숑 컷 카날리언을 세팅한 화진하는 구 형태의 펜던트가 경쾌한 매력을 뽐낸다. 핑크 골드와 세인 네크리스는 두 줄로 짧게 연출하거나 길게 늘어뜨려 착용할 수 있다. 5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유미**



남자의 향기

2008년 발매 후 열풍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약 1분에 11개씩 팔린 베스트셀러 향수. 향수업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제18회 2010 FIF 어워즈에서 최고의 남성 향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트와 가죽, 그리고 정미의 오묘한 조화가 색다른 향을 뿜어내는데, 금과를 형상화한 골드빛 케이스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파코라반 원질리언 오데토일렛 100ml 10만8천원. 문의 080-363-5454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TORYBAG

지난 시즌 첫선을 보이며 알렉산더 맥퀸의 새로운 시그너처 백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 백. 이번 시즌 한층 시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크고 굵어진 메탈 핸들과 웨이브 형태로 변주를 준 체인 스트랩이 보다 세련된 감각을 드러낸다. 다채로운 색상은 물론 다양한 질감으로도 선보이는데, 추가된 힙 스티칭 장식이 대표적. 플립 전면과 상단에 매듭 장식의 힙 스티칭이 부드러운 숭이까지 주 위에서 경쾌한 리듬감을 선사한다. 3백9만원. 문의 02-6905-3472



한 방울의 힘

가을 뷰티 필수품, 끈적이지 않는 페이스 오일 여섯. (오른쪽부터) **랑뎀 압출취 디아스크 로즈 오일** 정미를 비롯한 일곱 가지 식물성 에센셜 오일의 신비한 힘을 담았다. 30ml 25만원. 문의 080-022-3332 **라 메르 미라클 버블 오일** 피부 진정과 관체 개선 및 보습에 효과적인 해초 발효 원액을 사용했다. 30ml 31만원대. 문의 02-3440-2775 **연작 향일 리뉴링 오일** 진황이 찾아 해면 물로 원료 황칠의 활성 성분이 피부 생명을 연장한다. 20ml 15만원. 문의 1644-4490 **경량 오일** **알레라임 오일** 연성한 20가지 식물성 오일과 오가드를 불린듯해 피부 탄력을 강화한다. 30ml 43만원대. 문의 080-343-9500 **달랑 플라워 골드 베타 오일** 아열 가지 꽃을 혼합해 빠르게 흡수되는 가벼운 질감이 매력적이다. 30ml 23만2천원. 문의 02-6971-3223 **다들 다들 프레스티지 필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한층 풍부해진 포몰라가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 깊숙이 율리다에-차름 전달한다. 30ml 31만9천원. 문의 080-342-9500 포토그래퍼 **최승희** 에디터 **장민우**



FOCUS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코로나19가 지갑도둑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9월 5일 개막하는 2020 부산비엔날레는 전시 제목부터 공공성을 유발한다. 부산이라는 도시에 관련한 문헌에서 출발해 시예술품, 시운드를 유가적으로 엮는 융합적인 방식을 택해 서다. 김혜순, 배수아, 김승 등 한국 작가를 비롯한 다국적 저자 11명이 부산이나 도시를 소재로 탐정·공상과학 소설 등 다양한 글을 썼고, 그렇게 태어난 10장의 이야기와 5편의 시를 묶은 문집이 출발점이다. 각각의 글에 대해 시예술품과 음악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했다. 347쪽 90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이 현대미술 축제 의 전시 제목과 구성 방식은 10개의 피아노곡과 5개의 간주곡으로 구성된 무스스키의 작품 '전원회의 그림'(1874)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오 무스스키가 자신의 친구인 건축가이자 예술가 빅토르 허르만인 남긴 그림 10점을 소리로 표현했듯, 예술을 해석하고 다른 매체로 번역하는 접근법을 빌려왔다**는 것. 전시 장소도 부산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 보물찾기하듯 도시를 걸을 기회가 아닐까. 오는 11월 8일까지.

PRADA.COM/AUCTION



ITEM FEATURED IN AUCTION:
GEOMETRIC PRINT, ARGYLE WOOL SWEATER, POPLIN SHIRT, TIE WORN BY MAX TOWNSEND
GEOMETRIC PRINT, STRETCH WOOL VEST, POPLIN SHIRT, TIE WORN BY MAXIMILIAN BUNGARTEN
AUTHOR: MIUCCIA PRADA

PRADA

ORIGINAL PIECES FROM THE PRADA FW2020 FASHION SHOWS IN MILAN WILL BE AUCTIONED IN OCTOBER.

Sotheby's
PROCEEDS WILL BE DONATED TO UNESCO EDUCATIONAL PROJECTS.



블랙 아세테이트
아이웨어 40만원대
올채널가나 by
룩스타가.

수평이 향 22만원
보통이 배넌다.

DIOR

다음 오블리크 라이더 백백.
32x40cm, 가격 미정 다음.

베이비 카프 스킨 누벅 보머
재킷 9백10만원
에르메네집도 제나.

캔버스, 베네티아가죽을
조합한 백, 함께 연출한
데미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벨루티.

for him
Selection

입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뉴 시즌 비즈니스 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페나 로퍼 90만원대
루이 비통.

마이스터스탈은 펜타 프레스
슬라터어 프그랑 만넬 2백70만원 용량.

래더 T 벨트 95만원
툼포드.

바우다 소츠 1백25만원 구찌.

두 번 감아 연출하는
가죽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토티.

룩스타가 02-501-4436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티 02-3438-7682
다음 02-3480-0104
프라다 02-3218-5331
벨루티 02-547-1895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툼포드 02-6905-3534
몽클랑 1670-4810
토조 02-3438-6008
자황시 02-546-2790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에르메네집도 제나 02-518-0285

양 가죽으로 제작된 벨트
가격 미정 구찌.

슬래시 닥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재킷 3백11만원
알렉산더 맥퀸.

VOLVO

Top of the game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he New Volvo S90
with Advanced Air Cleaner



5년/10만km 보증기간 연장 및 소모성 부품 서비스¹⁾

서울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서현 031 707 2266 분당 판교 031 706 5599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의정부 031 563 7000 **NEW** 하남 031 795 0211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순천 061 754 7200 대구 053 768 5588 울산 052 268 0900 경상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광안 051 759 1600 제주 064 712 3600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유튜브 [youtube.com/volvocarkorea](https://www.youtube.com/volvocar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r](https://www.facebook.com/volvocar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r](https://www.instagram.com/volvocarkr)
정부가인 표준연비 및 등급 · S90 B5(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미정, 자동 8단) 복합연비:미정(도시연비 미정, 고속도로연비 미정) CO₂배출량:미정, 등급:미정. · S90 T8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미정, 자동 8단) 복합연비(플러그인 하이브리드):미정(도시연비 미정, 고속도로연비 미정) 1회충전 주행거리:미정, CO₂배출량:미정, 등급:미정.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태,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의 차량과 국내 판매 모델은 제원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옵션은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¹⁾5년 또는 10만km 중, 선도래 기준입니다. 연장 조건 및 적용 부품 등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Lord of the cars

우리네 일상을 수놓는 기계 미학의 결정체인 자동차의 질주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른다. 연초부터 지구촌을 신음하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필두로 한 각종 악재가 쏟아져도 자동차업계는 크게 주춤거리지 않았다. 외려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면서 여전히 매혹적인 신차 릴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아등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자차(자기 소유 차량)' 안은 평온을 누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를 즐기기에 더없이 적합하고 소중한 '나만의 성역'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멀리 아국으로 향하지 못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호젓한 방식의 국내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이 틈새를 놓칠 리 없는 하이엔드 카 브랜드들은 저마다 차별된 장점을 내세우며 마케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외관 디자인을 바꾸는 글로벌 모디피케이션 전문 브랜드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조금은 천천히 나아가도 될 법한데, 어쩌서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지칠 줄 모르고 '진화를' 외치며 전진하는 걸까? 더 나은 속도와 기능, 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룬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한국의 자동차 내수 시장은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견재한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에 비해 6.6% 증가한 94만8천2백57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움츠러든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유일한 상승세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 수입차 모두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내 여행과 캠핑 수요 덕분에 SUV는 여전히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비대면 휴가 방식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차박(車박)'에 적합한 중대형 모델도 인기다. 세단 시장은 하향세를 보였지만 고급화 추세에 따라 대형 세단만큼은 판매 호조를 보였다. 테슬라 열풍을 앞세운 전기동력차도 전반적으로 상승 노선을 걷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독일 차의 여전히 강세와 가까운 성장세를 탄 볼보, SUV 트래버스 등을 내세운 쉐보레 등도 주목된다. 현대차가 아침 차게 밀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기세도 흥미롭다. 올 초 SUV GV80, 이어 3월에는 준대형 세단 G80의 완전 변경 모델을 내놓은 제네시스는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를 판매 대수에서 앞지르며 1위 자리를 꿰찼다(1~7월 기준). 상대적으로 무탈한 한국 내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 격해지는 건 당연지사. 올 하반기 신차 대전이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하이엔드 SUV의 유혹

여가 지향형 라이프스타일로 편의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SUV의 전성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올 초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아스턴마틴이 1백6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고성능 SUV 모델 'DBX'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SUV의 S클래스'로 불리는 플래그십 SUV 신형 모델(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S)을 내놓는 등 하이엔드 카 브랜드들이 잇따라 SUV 시장에 공을 들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열렬 캠핑족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동 면에서 편리한 중형 SUV나 콤팩트 SUV도 여전히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이 수요를 겨냥해 제네시스도 GV80보다 한 계급 작은 SUV GV70을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내 발표될 브랜드 최초의 양산형 SUV 전기차인 '아우디 e-트론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캠핑이 확대되고 진화하면서 야외에서 필요한 럭셔리 캠핑용품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각종 사양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SUV를 둘러싼 럭셔리 미학도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모양새다. 포드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포드는 항공기 1등석이 부럽지 않은 '고요한 비행'을 표방하는 콤팩트 SUV '링컨 코세아'를 올해 출시했는데, MZ세대를 겨냥해 미술관 도슨트 투어까지 할 수 있는 2박 3일의 독특한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시승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잡을 콘셉트'로 한 미술관인 양평의 구하우스에서 미술, 영화, 독서, 플라워 등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강의를 듣고 미식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https://www.>

01012 | 럭셔리 브랜드별



facebook.com/lincolnkorea). 메르세데스-벤츠는 패션, 미술 등 문화 예술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꾸렸다. 루이 비통의 남성 컬렉션 아티스틱 디렉터이자 스트리트 감성을 펼치는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의 설립자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와 손잡고 지난해 탄생 40주년을 맞이한 상징적인 SUV 모델인 G클래스(G클래스)를 바탕으로 한 합작 작품을 8일 발표했다. 2 포드자동차의 럭셔리 콤팩트 SUV 링컨 코세아, 3 아우디코리아의 고성능 플래그십 세단 '더 뉴 아우디 S8 L TFSI', 4 마하티가 전 세계 40대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중대형 불루를 담은 색상의 노블레 에디션 출시 기념으로 상상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마하티의 외관 도장을 맡은 금속 가공업체와 손잡고 상상자의 럭셔리 브랜드 '제프 컬렉션'의 다섯 가지 도어 패널 중 최상위 패널인 마하티 불루를 적용했다. 5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 6 장인 정신이 깃든 기술과 내공으로 자동차 내·외관 디자인을 향상적으로 바꾸는 모디피케이션 전문 업체 칼렉스 디자인(Carlex Design)이 한국 시장에서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맥클라렌 720S'를 개인 맞춤형으로 개조한 디자인(2019), 7 롤스로이스의 팬텀 모델을 바탕으로 칼렉스에서 재탄생시킨 '내부 디자인(프로젝트명 'Abyss)', 8 롤스로이스 8세대 뉴 팬텀, 9 최신 선보인 MINI 클럽맨 한정판 모델 '캐슬 로에디션', 10 MINI 컨트리맨을 개조한 칼렉스 디자인의 미니 스티어링 에디션(2012), 11 칼렉스 디자인에서 현대스타메 TM 모델을 바탕으로 개조한 '아반 에디션(오른쪽)'과 메르세데스-벤츠의 X클래스를 개조한 '엑시(NEXY)' 모델, 페이스 북 CarlexDesignKorea, 인스타그램 CarlexDesign.asia

그래도 매력적인 중·대형 럭셔리 세단의 존재감

자동차의 '왕' 격인 대형 세단의 존재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압도적인 오라가 느껴지는 대형 그릴이나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길고 멋스러운 차체, 편안하고 넉넉한 공간 등 매력 많다.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운 볼보는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을 9월에 판매하는데, 이미 지난 7월 사전 계약 대수가 16일 만에 1천 대를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4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인 신형 S90은 최근 안전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시금 떠오른 SUV 모델 라인업과 더불어 '스웨디시 럭셔리'의 정수를 담은 차량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수입차 빅 4'까지 넘보는 볼보의 위치를 더 격상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인간 중심 철학을 반영했다는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에 재즈 클럽(jazz club) 모드를 추가한 영국의 바위스&윌킨스(B&W)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스웨덴 오레포스(Orrfors)의 크리스탈 기어노브 등 디테일의 미학이 엿보인다. 얼마 전 선보인 아우디의 고성능 플래그십 세단 '더 뉴 아우디 S8 L TFSI'도 시선을 끈다. 아우디 S 모델은 레이싱 경험을 기반으로 모터 스포츠의 DNA를 품은 독보적인 기술을 녹여내고자 자부하는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 라인. 4.0L V8 TFSI 엔진과 8단 티프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571마력, 최대 토크 81.58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9초. 가히 '일상을 위한 스포츠카'라는 설명을 곁들인 하이엔드 세단다운 성능이다. 또 '즐거움 드 라이빙' 경험을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콘트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우디 스마트 폰 인터페이스', 23개의 고성능 스피커로 구성된 뱅앤올룹슨(Bang&Olufsen)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 등을 갖추었다. 여기에 세단 시장의 전통 강자들도 합세해 예정이다. 지난 봄 브랜드 최상단에 위치한 럭셔리 플래그십 S클래스(마이바흐)의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던 메르세데스-벤츠는 올가을 브랜드 주력 모델인 E클래스의 부분 변경 신형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고, BMW 역시 7세대 5 시리즈를 8년 만에 부분 변경한 '신형 5 시리즈'로 맞불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진정한 럭셔리를 보여주겠다는 칼렉스 디자인의 도전장

브랜드와 차종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럭셔리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의 취향을 한껏 살린 비스포크 모델을 당해내기는 힘들 수 있다. 물론 기계 미학과 스마트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자동차라는 품목의 특성상 탄탄한 기본기에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는 건 필수겠지만 여기에 나만의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구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자동차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내·외관을 다양한 형식으로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이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엔진 성능 등에 초점을 맞춘 '튜닝'과는 미묘하게 구별된다). 자동차 애호가라면 단번에 솔깃하게 들릴 테고 환골탈태한 근사한 모습을 이미지로 접해본 적이 있다면 더 관심이 쏠릴 듯한데, 그렇다면 이 분야에 서 탄탄한 명성을 쌓아온 칼렉스 디자인(Carlex Design)을 주목할 만하다. 폴란드를 본사를 두고 올봄 아시아 헤드쿼터를 파주에서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칼렉스 디자인은 롤스로이스, 벤츠, 맥클라렌, 페라리 등 내로라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엄선된 모델을 재탄생시켜온 이력을 자랑한다. 출중한 명품 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개성 어린 감성을 담아 유일무이한 차로 변신하는 과정을 거치면 도로를 질주할 때도 '칼렉스'라는 이름을 내건 채 질주하는 셈이다. 칼렉스 디자인은 최근 현대 스타메 TM 모델을 바탕으로 한 '아반 에디션(Urban Edition)'을 선보이며 한국 브랜드도 목록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올가을 리뉴얼하는 웨스 이트에서 11종의 특별 한정판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렇듯 아예 차종을 선택해 칼렉스에서 작업한 한정판 모델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주문도 가능하다. 예컨대 롤스로이스 팬텀 8세대 모델을 수공 작업을 통해 은장식으로 점철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현재진행형' 사례가 있는데, 차값을 뺀 모디피케이션 가격만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고. 가히 럭셔리 자동차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는 듯하다. 글 **고성현**





Interview with_ 최을가

in the beginning

어린이의 자유분방한 낙서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화법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과 원초적인 의식을 캔버스에 담아온 최을가. 사람, 동물 같은 생명체는 사물이든 가릴 것 없이 큰 눈이 달린 존재, 그리고 질서 없이 놓인 뜻 모를 기호와 문자는 인류의 욕망을 수다스럽게 구현하는 그만의 조형 언어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그가 코로나19로 한국에 발이 묶이자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았다. 파주 헤이리마을에 자리한 자신의 아틀리에를 활짝 개방해 신작을 내걸고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하기로 한 것. 시원시원하게 솟은 충고 높은 건물, 전면창으로 자연광이 흠뻑 스며드는 근사한 아틀리에에서 그를 만났다.

사람, 집, 자동차, 배, 동식물, 의복 등 다양한 이미지가 평면의 화폭을 가침 없이 가로지른다. 이미지를 둘러싼 위계질서나 순서, 제약을 느끼지 않는 어지러운 조형 배치. 최을가(Woolga Cho)의 작업을 두고 '아니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일 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 무질서에서 오는 묘한 카타르시스와 원초적인 자유로움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색적인 강렬함이 리듬감 있게 흐르는 가운데 똑같은 조형이 없는 그의 그림은 삼인삼색 구성이 일그러져서 세상사에도 같다. 이처럼 감침 없이 대체로운 형상의 표현은 원시주의 미술과 사마니즘에 대해 그가 평생 풀어온 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찾는 답은 동굴벽화에 있었다. "질주하는 말, 상처 입은 들소 등 사냥의 성공을 기념하는 주술 행위에서 시작된 벽화는 눈으로 관찰한 형상을 세밀하게 재현하고자 한 인류 최초의 예술 행위라고 하죠. 언어가 없던 원시시대에는 인간과 사물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무게감을 지녀 각각의 언어적 역할을 수행했을 테죠."

21세기에 그리는 언어 이전의 세계, 대표 연작 '블랙과 화이트' 시리즈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 표현에 목말라 하던 최을가가 사마니즘적 원시성을 색면화하는 작업에 천착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그는 문명 이전의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를 오늘날 그림으로 대신 읊어내려던 '흑과 백'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니까, 모든 것을 해체하면 흰색이 된다고 하지 않나. 그리하여 그는 검은색과 흰색을 배경색 삼아 자신의 대표 연작으로 통하는 '블랙 시리즈'와 '화이트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20년 전쯤의 일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가 눈이 달릴 만하지 않은 곳에 눈을 그려 넣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람 눈을 한 동물을 등장시키든지 물병, 유리잔, 시계 같은 데 눈을 붙여 넣어 의인화하는 식이다. 눈을 장착한 사물은 생명을 얻고 할 말이 생긴다. 그래서일까, 그의 그림은 대화할 거리가 넘쳐나고, 골똘히 마주하고 있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기도 한다. "원시의 동물 벽화를 오늘날 보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그것이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동물에 그림을 그렸듯 저는 캔버스에 그림일기 쓰듯 현대의 기록을 남기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양은 달리지더라도 최을가의 작품마다 색면 도형이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는 이를 '세이프티 가드(safety guard)'라고 부르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설명한다. "이런저런 이미지가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가운데, 도형같은 형상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붙힌듯 따옴표 것이 저 도형이었어요." 이 같은 의도를 잘 반영하듯, 견고하고 뚜렷한 색면 도형은 에너지가 가리낌 없이 뻗는 화폭의 한구석을 묵직한 문진처럼 눌러주며 중심을 잡아주는 듯하다. 원시적인 소재들이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문자이자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정표인 셈이다. 자유로움과 엄격한 일견 상극 같아도 끝과 끝은 만나는 말이 있듯 그 둘이 이룬 '합일'을 최을가의 화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원초적인 순수함과 자연의 정서를 품은 '레드 시리즈' 최근에는 '블랙 시리즈'와 '화이트 시리즈'에 이어 '레드'를 캔버스에 새롭게 펼쳐내고 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근원적인 자유, 순수함을 구현하는 데

제각이죠. 빨강은 색의 정정이에요. 수많은 색깔 중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있는 능률한 대장 같다고나 할까요. 짧은 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감명을 주는 색이니까요." 다른 색을 혼합해 만들 수 없는 일차색인 빨강은 가장 원초적인 색으로 꼽힐 만하다. 사람이 이를 불인 최초의 색이자 구성사태 동굴벽화에도 자취가 남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색이기도 하지 않나. 무수한 점으로 바탕을 붉게 물들인 최신작 '레드 시리즈'와 대표 연작인 '블랙 & 화이트 시리즈'를 비롯해 처음 시도한 세라믹 오브제도 선보이는 최을가의 개인전 <인더 비기닝(In the Beginning)>은 9월 8일부터 19일까지 그의 파주 작업실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형 전시로 기획된 '이트조션 아틀리에 프로젝트' 1탄이다. 최을가의 국내 작업실이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만큼 미술 애호가와 컬렉터에게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작업 세계를 들여다보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뉴욕 도시에 있는 아틀리에와는 달리 파주에서는 매일 푸른 자연을 보며 작업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준, 생각지 못한 긍정적 경험이었죠. 이런 작업실이 뉴욕에 있다면 천천히 풀려났을 텐데요. 하하." 문의 02-724-7832 글 윤다람/이트조션 기자 에디터 고성연



1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을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그는 최초로 자신의 국내 작업실을 개방해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한다. '이트조션 아틀리에 프로젝트' 1탄인 이번 전시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2 파주 헤이리마을에 자리한 최을가 작가의 작업실 모습. 지난해부터 에너지를 쏟고 있는 레드 시리즈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3 White(K- Unicorn-004, 2019), 109X78X27cm, Oil and Mixed Media on FRP 4 Black Series(A Conversation in the Dark, 2018), 121.9X152.4cm, Oil on Canvas 5 White Series(Brooklyn-014, 2019), 121.9X152.4cm, Oil on Canvas 1, 2, 3 Photo by 김중연 기자/서명상 미디어



starry night

올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 아쏘 그랑루과 아쏘 뽀띠룬. 가을 밤하늘을 닮은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형상화한 스프링클링 세팅 등으로 시선을 모은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말안장 아래 발받침을 뜻하는 등지에서 영감을 받은 아쏘(Arceau) 컬렉션은 1978년 첫선을 보았다. 전통적인 원형 시계 디자인 코드를 벗어나 기침없이 달려나가는 말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기울여 쓴 이리버이숫자 인덱스, 독특한 비대칭 리그 등이 가장 큰 특징. 올해 그중 두 모델이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먼저 기존 화이트 다이얼에서 딥 미드나잇 블루 컬러 다이얼로 새 옷을 입은 아쏘 그랑루은 6시 방향 카운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장식에 변화를 줬다. 자개 다이얼로 선보인 아쏘 뽀띠룬은 케이스에 블루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흠뻑려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문의 02-542-6622 에터 장미윤

(위) 자개 다이얼에는 65개 블루 사파이어와 58개 다이아몬드를, 자름 38mm 스틸 케이스에는 22개 블루 사파이어와 10개 다이아몬드를 흠뻑려놓았다. 6시 방향과 10시 방향에서 날짜와 문맥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아쏘 뽀띠룬 1천2백만원대. (아래) 자름 43mm의 스틸 케이스에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을 매치했다. 6시 방향 카운터에서는 문맥이즈와 날짜 확인이 가능하고, 12시 방향에서는 월과 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쏘 그랑루은 7백만원대.

● sponsored by Hermès Watch

one and only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 매력을 지닌 두 아이콘의 만남. 알렉산더 맥퀸의 주얼 사철 백을 선택한 배우 전지현이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지난 6월, 알렉산더 맥퀸의 한국 최초 앰배서더로 선정되며 하우스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매력적으로 그려낸 배우 전지현. 그녀가 맥퀸의 새 시즌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2층에 위치한 알렉산더 맥퀸 부티크에 방문한 그녀는 2020 F/W 컬렉션 룩을 완벽히 소화한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연미복에서 영감을 얻은 날렵한 디테일과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돋보이는 블랙 컬러 니트 드레스, 볼드한 실버 브라스 주얼리와 롱부츠를 착용한 모습은 이번 시즌 사라 버튼이 꿈꾸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의 면모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화제를 낳은 건 모던한 룩에 힘을 실어준 주얼 사철 백. 알렉산더 맥퀸의 아이코닉한 포링 클러치에서 영감을 얻은 이 가방은 전면이 더한 스컬 모티프의 시그니처 포링 주얼 핸들이 포인트로, 여기에 손을 끼워 넣어 클러치처럼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인 스트랩을 짧게 혹은 길게 매서 연출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매 시즌 컬렉션 테마에 따라 변주를 더해 선보이는 주얼 사철 백은 현재 세 가지 사이즈(미디엄·스몰·미니)와 여섯 가지 컬러(딥 레드·아이보리·에머시스트·실버·골드·블랙)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472 에터더 아베미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1 모던한 블랙 색상의 크로코다일 엠보싱 카프 레더 미니 주얼 사철 백 2백28만원.
2 골드 메탈과 컬러풀한 스와로브스키 장식이 글래머러스한 무드를 연출하는 퍼플 컬러 미니 주얼 사철 백 2백28만원. 3, 4 광택이 감도는 에머시스트와 화이트 크로카다일 엠보싱 카프 레더 미디엄 주얼 사철 백 2백78만원.



2020 F/W trend report

trend 1 Oversized Cape & Poncho



케이프, 판초는 가을, 겨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클래식 아우터. 이번 시즌에는 마치 블랭킷을 두른 것처럼 보이는,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긴 아이템이 유행이다. 손과 무릎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사이즈의 헤링본 판초에 톤온톤 부츠와 벨트를 함께 스타일링한 이자벨 마랑, 오버사이즈 케이프 아래로 얼굴까지 올라오는 긴 터틀넥과 롱부츠를 매치해 프로포션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연출한 디올 코어스 컬렉션, 이 밖에도 셀시오, 자형시, 페라기모, 마크 제이콥스 등의 쇼를 참고해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즐겨볼 것.

Loro Piana

강인한 여성을 그린 다채로운 방식과 휴머니즘적 접근, 유구한 전통의 해체를 통한 진보적 행보, 익숙한 요소를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이 함께한 2020 F/W 컬렉션. 그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 8.

trend 2 Sleek Leather Coat



올 레더(all leather) 룩이 펜디, 미우미우, 디올 같은 빅 브랜드의 쇼에 심상찮게 등장하는 가운데, 트렌드에 민감한 이르면 그 중심에 레더 코트가 있음을 눈치챈 듯, 특히 일찍부터 레더 제품을 다루며 노하우를 쌓아온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부드러운 감촉의 롱 레더 코트는 이후 말할 수 없이 핫스럽다. 소재 자체가 자닌 힘이 있기 때문에 장식적 요소를 제외한 심플한 스타일링이 가장 멋스럽다. 에르메스, 페라기모, 토스 등을 참고할 것.

TOD'S

Loro Piana



이번 시즌, 야생적 관능미를 탈피해 컬렉션의 테마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레오파드 프린트. 휴머니티라는 주제 아래 유니폼-드레싱, 클래식 사치함을 반영한 발렌티노의 파렐피올로 파출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레이 컬러로 변형한 레오파드 프린트 코트 룩을 통해 개성을 잃은 듯 보이는, 그러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의 여성을 그려냈다. 한편 잠재성을 지닌 여성의 이중성(소프트 파워)을 표현하고자 한 살바이 페리는 핑크 디테일의 핑크 새틴 드레스에 이와 상반된 질감, 컬러, 무드의 그레이 레오파드 프린트 퍼코트를 매치해 전복적 콘셉트를 충실히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Roger Vivier

VALENTINO

FENDI

trend 5 Leopard Print in Different Ways

trend 6 Red All Over



발랄한 파스텔, 애시드 컬러의 향연 속에서 올 레드 룩이 거물급 패션 하우스의 런웨이를 물들였다. 볼륨 있는 드레이프 스타일의 리본이 아름다운 레드 코트에 누드 스트랩 샌들을 매치해 모던한 우아함을 정의한 지방시, 어깨와 허리 라인을 강조한 날 선 테일러드 슈트에 웨일스 자침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붉은색을 입혀 강인한 여성상을 구현한 일렉산더 맥퀸, 리프스 홀터 드레스 아래 레드 스타킹과 힐을 매치해 1990년대식 관능미를 보여준 생로랑 등. 무수히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인 올 레드 룩은 제각기 다른 색으로 여겨도 될 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SAINT LAURENT BY ANTHONY YACARELLO

GIVENCHY

Valentino Garavani

Hermès

trend 3 Throwback to the 1960s & 1970s



1970년대의 프렌치 부르주아 룩을 향한 에디슬리안의 사랑은 이번 시즌에도 계속됐다. A라인 스웨이드 미니스커트, 짧은 가죽 재킷, 벨보텀 팬츠, 글램룩 스타일의 화려한 드레스가 연이어 등장하며 그가 향하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한편 2015년 구찌의 수장으로 부임한 아레놀과와 한자가 공존하는 컬렉션을 펼친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이번 시즌 백스태이저를 무대 위로 올리고, 자신의 시그니처를 망라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모즈 룩을 연상시키는 미니스커트, 히피풍의 패턴드 블라우스, 데님, 셋업 슈트 등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한데 어우러졌다.

trend 4 Mix and Match Check



이제 체크 아이템을 하나만 입는다면 다소 밋밋하거나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브리티시 칼처는 거대 유산을 기점으로 버려지는 브라운 타탄 체크 패턴의 윈피스, 코트, 헛을 레이어드한 룩을 필두로 현대적인 유니폼 룩에 지극히 영국의 인 패인 플레어를 펼쳤다. 버버리 또한 브랜드의 아이코닉인 베이지 체크, 트윈코트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며 다양한 체크 프린트가 충돌하고 어우러지는 컬렉션으로 전개했다. 체크 패턴으로 컬렉션 전환을 이끌어간 브랜드는 런던이 아닌 파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체크를 현대적 언어로 해석한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지극히 익숙하며 때로는 고루하게까지 느껴졌던 패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Dior

Celine

DIOR

BURBERRY



Roger Vivier

드라마틱한 울퉁감을 더하는 프린지 장식은 2020 F/W 시즌 런웨이 위 가장 주요한 디테일 중 하나. 칼라를 한 바퀴와 원사, 원단으로 만든 프린지 장식을 대다수 룩에 적용, 유연한 동시에 강인한 여성상을 구현한 프라다 대표작인 에다. 한편 프라다 컬렉션에서 프린지 파우치로 폭발적 반응을 얻은 보테가 베네타의 다-멜 리는 과장된 프린지를 다한 코트, 점프 슈트, 드레스 등으로 시각적 재미를 주는 동시에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고, 인트레치타도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BV 프린지 크로스 백으로 변하지 않은 존재를 이어갔다.

trend 7 Extreme Fringe



BOTTEGA VENETA

PRADA

trend 8 Pump up the Volume with Ruffles



LOUIS VUITTON

Alexander McQueen

Aquazzura

MAX MARA

아게, 소매, 밑단 모두 부풀리고 또 부풀리는 것이 이번 시즌의 메인 트렌드. 그리고 풍성한 실루엣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러플이다. 하지만 시름스러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디테일을 보는 디자인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즌 행하와 모함은 주제로 한 막스마라의 겹겹이 쌓아 올린 러플 장식 소매로 대담하고 강인한 여성상을 나타냈고, 일렉산더 맥퀸의 사바 버튼 역시 '용감한 영웅'이라 표현한 여성을 그려낸 러플 디테일의 테일러드 재킷, 드레스를 내놓았다. 한편 오래된 것, 규율을 향한 도전과 함께 오로지 즐거움을 찾는 자유분방함을 주제로 한 루이비통의 컬렉션에서 발랄한 러플 스커트의 행렬이 이어졌다. 에디터 이혜미

화이트 니트 드레스 2백38만원,
레드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블랙 벨트 가격 미정
모두 알렉산더 맥퀸.



GIRL CRUSH

더 이상 룰은 없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더욱 자유로워진
2020 가을, 겨울 여성 기록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브라운 체크 베스트,
하니 컬러 체크 재킷, 터틀넥
톱, 레깅스, 스트랩 풀
모두 가격 미정 버버리.



버건디 레더 재킷,
슬리브리스 니트 톱, 블랙
벨벳 팬츠, 골드 체인 벨트
모두 가격 미정 **사일**.



블루 웨이스트 스트링
원피스, 블랙 롱부츠 모두
가격 미정 **2 몽클레르 1952.**



베이지 트렌치코트
7백92만원, 브라운 저지
드레스 가격 미정, 라버 부츠
79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그레이 체크 재킷 3백46만원,
팬츠 1백47만원, 골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자원시**.



그레이 더블 코트 3백90만원,
 화이트 리본 타이 장식 셔츠
 1백55만원, 그레이 스카트
 1백66만원, 체인 장식 블랙 메리제인
 펌프스 1백70만원, 크리스탈
 헤어밴드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베이지 패딩 재킷 가격 미정, 블랙
 슬리브리스 셔츠 가격 미정, 옐로 레더
 스카트 가격 미정, 핑크 스트랩 펌프스
 1백30만원대, 레드 타이 가격 미정, 블랙
 벨트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레이 김우준
 메이트업 김도현
 모델 손누리(YG Kplus)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보태가 베네다 02-3438-7682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지형시 02-546-2790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버버리 080-700-8800
 2 몽클레르 1952 02-514-0900



scent of memory

이번 가을은 어떤 향기로 기억하고 싶은가?
낭만적이고 우아한 향을 품은 이 계절, 이 향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시드림 조소진

(왼쪽부터) 바이레도 일레븐스 아워 오브 퍼플럼 시랑과 희향, 그리고 인조어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고귀한 의미를 향으로 표현했다.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베르가모트의 일쇄향 뱀 터 페퍼의 독특한 조합이 돋보인다. 달콤한 무화과와 통기 빈, 그리고 캐사이어 우드가 차태대로 이어져 짙은 여운을 남긴다. 100ml 23만원. 문의 02-3479-1688 **샤넬 코코 미드모아젤 로 프라베** 기존 코코 미드모아젤 본연의 대담하고 우아한 향에 충실하면서도, 싱그러움만 다룬다. 재스민 앵술루트, 로즈 테팔이 아우라진 플로럴 아코드가 메인으로 활약해 생생하고 사랑스러운 향을 이룬다. 은은하게 조향한 우드 노트가 화이트 마스크 향을 강조해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100ml 18만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에어린 안보레트 드 누이트** 장미, 프리지어, 재스민, 작약이 모여 생수향한 꽃향기를 이루고, 그윽한 통기 빈과 사타우드, 벤조인을 더한 매혹적인 향기가 후각을 자극한다. 50ml 26만5천원. 문의 6971-3212 **카르띠에 레 제무르 드 퍼플 뫼이 메그 놀리아** 복숭아향과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향수. 마치 목란으로 가득 찬 자연을 누리듯, 불로성 재현의 신화적이고 신성한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매그놀리아 꽃잎을 즙은 사타루를 보물에 새겨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75ml 33만원. 문의 1566-7277 **조 말론 런던 피크 앤 로라스** 플라워 고대 공중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컬렉션. 은은한 연꽃과 무르익은 무화과를 조화한 감이롭고 우아한 라이트 플로럴 향을 뽐낸다. 100ml 19만원. 문의 02-3440-2750 **인생로망 뷰티 리브르** 반주한 카스드르 골드 로고로 장식한 보틀에 담은 리브르 향수는 자유에 대한 헌사를 담았다. 라벤더와 오렌지 불로성이 아우라진 싱그러움, 플로럴 노트를 중심으로 피우다워한 마스크가 남긴 찬향이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50ml 15만원. 문의 080-835-0089 **에디터 이유미**



이시드림 조소진
Sponsored by CHANEL

midnight beauty

피부 건강을 되찾아주는 자연 유래 성분을 담은 샤넬의 나이트 케어 신제품 '리프트 크림 드 누'. 매일 아침 눈을 떠 화사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확인하는 기쁨을 선사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비뚤고 처절한 하루를 보낸 뒤 누리는 밤의 평온한 휴식, 긴장을 풀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불러오는 이 시간은 피부에도 소중한다. 더불어 세포의 재생과 성장은 낮보다 밤에 25배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 문제는 오염 물질, 기온 변화,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자칫고 민감해진 피부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자체 진정 능력과 개선 효과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노화의 징후는 되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부 고민을 남긴다. 충분한 숙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최상의 성분을 담은 제퍼모 나이트 케어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이에 샤넬은 밤사이 피부에 강력한 힘과 생기를 부여하고, 피부 본연의 기능을 깨워줄 나이트 케어 크림을 개발했다. 뉴 라프트 나이트 컴플렉스와 식물성 알팔파 추출물을 포함해 94%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리프트 크림 드 누(Le Lift Crème de Nuit)'. 리프트 라인인 새로운 성분인 뉴라프트 나이트 컴플렉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활력을 채우는 복합체로, 크게 두 가지 활성 성분으로 이뤄졌다. 우선 백호은침차 또는 백차(화이트 티)로도 불리는 신허 니들 티. 1년 중 딱 열흘 동안만 수확 가능한 진귀한 원료로, 줄기 맨 위에 자라는 어린 새싹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채취해 얻은 추출물은 테아닌,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진정,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해양 유래 활성 성분으로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 충분한 수분감을 채워주며 식물성 알팔파 농축물을 만나 나노지 효과를 낸다. 알팔파는 최근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와 의학적 효능이 알려진 콩과 식물. 프랑스에서 재배한 알팔파의 씨앗으로부터 친환경 과정을 통해 추출한 식물성 알팔파 농축물은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세포 증식을 촉진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비하면 제퍼모 인클림 피부에 편안함을 주는 포물라의 감촉 또한 중요한 요소. 리프트 크림 드 누는 호호바 오일, 시아버터 등을 함유해 뽀얗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동시에 피부를 감싸듯 밀착되는 텍스처가 기본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성분이 밤새 촉촉함까지 더해 주는 동안 피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리프트 크림 드 누는 같은 라인의 리프트 세럼, 리프트 아이 크림과 함께 단계별로 사용하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한다.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에디터 이유미**



(왼쪽부터) 다각형 메탈 안경테 40만7천원 **빅터 앤 폴프 by 시몬 아이베어**, 문의 02-565-6940
 골드 컬러 다각형 메탈 안경테 20만원대 **레이벤 by 루스티카**, 문의 02-501-4436



(왼쪽부터) 캣아이 형태의 메탈 안경테 32만원 **젠틀몬스터**, 문의 1600-2126
 오버사이즈 메탈 안경테 46만원 **자마주 by 사필로**, 문의 02-563-8268
 표인과 체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안경테 99만8천원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frame first

매일매일 습관처럼 쓰는 안경이 첫인상을 좌우한다. 안경도 스타일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메탈 프레임에 아세테이트 소재를 매치한 안경테 56만원 **틀 포드 by 브라이언 앤 데이비드**, 문의 02-3446-8552
 메탈 소재의 얇고 가벼운 안경테 22만5천원 **타이힐피커 by 사필로**, 문의 02-563-8268
 직사각 형태의 티타늄 소재와 아세테이트 프레임을 매치한 안경테 37만5천원 **젠틀몬스터**, 문의 1600-2126



(왼쪽부터) 데님 소재로 프레임을 한 번 더 감싼 안경테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얇은 갈색 프레임을 덧입힌 메탈 안경테 50만5천원 **자방시 by 사필로**, 문의 02-563-8268 에디터 **정리윤**

blue charisma

가을의 문턱에서 느끼는 자유의 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근사하고 세련미 넘치는 아메리칸 클래식을 정의하는 폴로 블루 로렌. 향수에서도 그 일관성은 계속된다. 폴로 블루 EDT는 드넓은 대양에서 느껴지는 자유롭고 활력 넘치는 에너지에서 영감을 얻은 제롬, 시원하고 따뜻한 바다의 향과 청명한 하늘의 경쾌함, 공기에 서린 신선하고 깨끗한 향을 담았다. 프레시 멜론과 민디린 오렌지의 낭만적인 과일 향을 시작으로 세이지와 바질, 제라늄이 어우러진 말콤한 미들 노트가 해변의 미풍에서 느껴지는 흙 내음과 묘하게 중첩된다. 여기에 부드러운 스웨이 드와 머스크의 묵직한 향이 도화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도시 남자의 이미지를 완성. 마치 대서양을 마주한 이스트 햄프턴 해변을 거니는 듯 여유롭고 이치적인 바이브를 연출한다. 푸른 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기운이 느껴지는 코랄트 블루 보틀에 이 매력적인 향을 담았다. 문의 080-363-5454 에디터 **이주이**

해변의 공기와 바람에서 느껴지는 깨끗하고 캐주얼한 향이 특징인 폴로 블루 EDT 125ml 11만2천원.



© sponsored by RALPH LAUREN

gentle touch

여러 이유로 피부가 민감한 요즘이다. 실리콘, 인공 향, 인공 색소 같은 유해 성분을 배제한 것은 물론 엄선한 순수 성분으로 피부를 다독여줄 제품을 한데 모았다. 연약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화장품 6.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왼쪽부터) **유리아주 스틱베르 센베이스** 눈가와 입가 보습은 물론 자외선 차단까지 돕는 강력한 이온형. 유티뷰프가 가능하여 보습 효과도 상당하다. 랩팜 같은 작은 스틱 형태로 가볍게 가져다 다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덧바르기에 좋다. 4g 1만5천원. 문의 02-3487-4815

바이오다마 시아비오 폼마드 울긋불긋 화농성 트라클레에 각질까지 올라와 피부가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 싶을 때,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탄탄히 재형성에 이만한 제품이 없다. 피부에 필요한 설페이트사이타카와 구리, 아연 성분이 각종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킨다. 여기에 8할루본산, 자외라를, 글리세린으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최적의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40ml 2만2천원. 문의 02-523-7676

키엘 베이비 페이스 & 바디 크림 저자극 포뮬러로 아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얼굴과 전

신 피부에 쓸 수 있는 제롬. 썬케어 오일, 올리브 오일, 실구 씨 오일을 조합한 스킨케어 오일 블렌드 성분으로 이 워터 텍스처가 피부를 깊숙이 부드럽게 밝히는 느낌이 탁월하다. 보습 효과가 뛰어난 시아비오와 향산화 효과가 우수한 토코페롤 성분을 담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200ml 3만원대. 문의 080-822-3322

반 데르 피예 허우드벨렌스 칼렌듈라 허스벨 크림 손상된 피부 회복은 물론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롬, 칼렌듈라, 로즈메리, 알로에 베라, 시아비오, 호호바 씨, 아보카도오일이 순한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구성된 무자극 화장품. 수크림처럼 묵직하고 부드러운 제형이 피부를 보드랍게 감싸는데, 땀막 비린 후 아침에 일어나면 보습보충하고 피부 속부터 영양이 꼭 채워진 듯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느낄 수 있다. 피라벤이나 실리코 같은 유해 성분을 배제한 덕분에 제품이 모공을 막지 않아 지성 피부에도 안심할 수 있다. 울긋불긋 올라온 뾰루지 안정 효과는 덤이다. 110ml 6만9천원. 문의 031-716-4866

산타 미리아 노벨라 크레마 디 프로퓨모 비보 피지선이 비교적 적은 보습 피부는 쉽게 예민해지기 마련. 오히려 오히려 울긋불긋 올라온 각질층부터 건조해지기 쉬운 필립피와 발두피까지 지해결해준다. 또 이온드 오일을 함유한 가볍고 촉촉한 포뮬러가 피부를 급세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샌들우드와 오렌지 향이 섞인 편안하고 기분 좋은 스카시 플로럴 향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250ml 10만8천원대. 문의 02-6002-3133

허스벨러 리움 드롭스 키미 데이즈 전 성분 EWG 안전 등급을 받은 비건 포뮬러와 친환경 패키지로 착하고 지속 가능한 뷰티 소명을 실천하는 허스벨러의 아심적, 정제수 대신 칼렌듈라꽃수를 담은 앰플로 좀 주름들과 강한 성분 복합체가 피부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빠르게 진정시킨다. 스킨케어 향과 알로에 안으로 정량하게 사용하기도 좋다. 세럼과 오일 성분 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했. 15ml 2만4천원. 문의 1833-2087
에디터 **이주이**

아이스틴 조차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구강 청결
올해 들어 몇 개월 동안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입속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경쓰이는 건 구취.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마스크 속에서 축적되는 그 형은 생각보다 참기 힘들었다. 입속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미션은 치아와 잇몸 관리다. 입안은 언제나 타액 때문에 습하고, 적절할 온도까지 유지하고 있어 세균 번식에 최적화된 곳. 그런 데다가 코로나 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으니, 기침이나 재채기로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고, 거기서 세균이 번식해 다시 입물과 치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치석은 물론 음식을 찌꺼기까지 달고 다니는 슈레의 입 냄새까지도 향기롭다 했던 피오나 공주를 만날 수 없다면 이제는 스스로 관리해야 할 시간이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는 양치질은 구강 질환의 원인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진동 칫솔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실론 투스웨이브는 국제 특허를 받은 고주파(Dental RF) 기술까지 더해 치아 표면에 강하게 부착된 치석을 제거한다. 2개의 고주파 전극에서 전류가 발생하고, 실론 브리지로 양극에서 발생한 전류 흐름이 칫솔모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원리. 이렇게 발생한 고주파 에너지가 칫솔모와 치아를 통해 치아에 닿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브리지가 닿지 않는 치아의 틈새 및 잇몸까지 전달되어 건강한 구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치아 착색 및 얼룩을 제거해 미백 효과는 물론 4만8천 번의 음파 진동으로 불순물까지 부드럽게 제거해준다. 또 IP67의 높은 방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물 세척도 용이하며,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30초마다 구강 부위 변경 알림이 설정되어 있어 2분 단말 케어에도 편리하고, USB 무선 충전 방식 덕분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투스웨이브 본체와 칫솔 헤드 2종이 세트 구성되어 있는데, 칫솔 헤드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진동 강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39만원.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장리유**

clean solution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특허를 받은 고주파 기술로 세심한 관리가 가능한 실론 투스웨이브를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sponsored by silk'n

editor's Pick

환절기 최적의 뷰티 컨디션을 위한 이달의 뷰티 에센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클리어픽스 인스트립 마스크**와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이라도 그득해졌다 싶으면 기울아 왔다는 증거. 정교한 빛깔 모양 브러쉬와 짙은 블랙 피그먼트가 속눈썹에 풍성한 볼륨감을 더해준다. 함유된 풀러미 섬유 덕분에 인지기후 날림과 번짐이 적어 눈 화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7g 3만8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준희*

랑콤 압슬뤼 루즈 안티에이징 일크리 #274 눈으로 봤을 때는 누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부드러운 질감이었는데, 톤 다운된 인디언 핑크와 레드톤 색은 컬러로 발색된다. 미끄러져서 부드럽게 발라지만 매트한 타입. 매트 립스틱 특유의 답답하고 건조한 느낌을 전혀 없고,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다. 3.4g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장리윤*

스쿠 피우레 블러퍼 콤파렉트 #101 극도의 생생함이 느껴지는 제롬라이 만족스러운 스쿠. 유리구슬 공에서 영감을 얻은 새 시즌 색조 칼렉션의 피우레 블러퍼 콤파렉트는 차르네 가지 컬러와 하이아이트 두 가지 컬러를 하나 팔레트에 담았다. 보이는 색상 그대로 발색되며 매우 곱고 미세한 피그먼트를 함유해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16.5g 1만2천원. 문의 02-6905-3369 *_by 에디터 이혜미*

다케이 로얄 펠릭스 샴페인 파스트 에센스 정제수 대신 탄력 효에 효과적인 블랙 스네일 점액 에크몰과 아테란신으로 이뤄진 제롬. 세안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아이 크림으로 화장실에 들락 저서 부드럽게 닦아내듯 비번만 피부가 금세 촉촉하고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자극도 적어 민감 피부에 사용해도 안심. 165ml 3만4천원. 문의 1811-9415 *_by 에디터 이준희*

샤넬 베쥬 헬시 글로우 모이스처라이징 파운데이션 #BD01 콤파렉트하고 감각적인 인보틀이 마음에 쏙 드는 제품. 피부에 매우 가볍고 신뜻하게 밀착되는데, 미루기만 되면 끈적임 없이 적당히 촉촉하다. 본연의 피부 톤을 살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총 107가지 세트. 30ml 7만9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_by 에디터 이혜미*

자렌시 하이드라 리스스 수딩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스킨케어의 첫 스텝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결을 정돈해주는 로션.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닿는 가파 가볍고 흡수가 빠른 제품을 선호하는 이에게 인성맞춤이다. 개개 끈적임도, 갈들거나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다음 제품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 합께 200ml 6만3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장리윤*

시슬리 리스트릭트림 나일링 밤 영색 후 허리가 다리게 가볍고 푸석해가는 매끈한 머릿결에 단번에 되아주는 아이 크림. 마카다미아, 모링가 같은 내추럴 오일 복합체가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부여한다고, 사용법은 간단하다. 밤 향기의 제롬이 손에 닿으면 곧 유행로 변하는데, 이런 모발에 바르고 톡 치고 일어난 샴푸 다음 물로 헹구면 끝. 털을 진정시킨 에크몰은 헤어 전용 샴푸 함께 사용한다. 스티프 덕분에 아이 크롬을 바로 뺏아내지 않는다. 150g 13천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이준희*

리파리 스킨 케어 리퀴드 리프트 메일 이점 에센스 단계에서는 주변을 제외한 얼굴과 목에 바르고, 피부 속부터 차르리는 탄력이라는 문구 그대로 느껴지는, 하루 종일 살짝 피부를 꼬아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2017년 선보인 베스트셀러로 동국한 제품에 진화된 성분과 과학을 일체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라 더욱 신박하다. 50ml 8만2천원. 문의 02-511-6626 *_by 에디터 장리윤*

몽블랑 시그니처 우먼 EDG 몽블랑 우먼의 향기는 어떤 느낌일까? 매종의 이이코너 한 팔이 무에서 영감을 얻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이 향수는 자신의 인성을 주체적으로 새 내리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향을 표현했다. 따뜻한 바닐라와 시련한 머스크, 플로럴 노트가 아우라처럼 향을 맡는 순간 우연한 이미지라 그려진다. 90ml 13만5천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이혜미*

로얄핀 피토티어티브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 로얄핀은 독일의 유명 피부과 전문의 팀 골루케가 설립한 비건 프리엔들리 데모 코스메틱 브랜드. 이들의 스킨케어 라인 중 주름, 다크서클, 아이백 등 눈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아이 크림은 식물 활성 성분을 결합한 로얄핀 콤플렉스, 케라틴 추출물, 비타민 C 등을 담았다. 예민한 눈가에 자극이 전혀 없고, 적당히 리치된 포물라가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해줘서 꾸준히 사용했을 생리. 15ml 2만2천원. 문의 1644-4480 *_by 에디터 이혜미*

아틀리에 코롤 러브 오스만투스 차이나 오스만투스 플라워의 달콤한 향이 메이크업 레몬을 더해 싱그러운데, 시너우드로 미꾸라해 시너지 지남수록 살짝 가미되는 따뜻한 향도 느껴진다. 달빛 도는 아우운 밤 도시의 공원에서만는 연인들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딱 지금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향이다. 100ml 1만2천원. 문의 02-3438-6079 *_by 에디터 장리윤*

CNP 팜슈티컬 피부 클렌징 밤 예민 보스가 따로 없는 환절기 피부엔 자극을 최소화하는 뷰티 리우얼이 필요한 밤. 부드러운 세척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려들어서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닦아주고, 자전에서 추출한 허브 포물라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세안 후에도 민감 없이 촉촉하게 남는 수분감도 만족스럽다. 100ml 2만8천원. 문의 080-220-0707 *_by 에디터 이준희*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워터리 글로우 프라이머 이틀에서 연상할 수 있듯, 8월과 9월과 이온 충전수 수분을 들락 머그고 피부에 광택을 더해주는 아이 크림. 메이크업 첫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콧등, 이마 중심 부위같이 일괄적으로 보일 땐 원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레이어링해도 좋다.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하이아이트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장점. 40ml 7만5천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준희*



SHOWROOM

JEWEL&WATCH



에르메스 워치 아산 인투더 캐나다인 와이드 다이얼 위 북극곰과 흰 올빼미 페인팅은 캐나다 건국 1백50주년을 기념해 영국 아티스트 앨리스 살라가 디자인한 인투더 캐나다인 와이드 실크 스킵에서 차용했다. 다이아몬드 82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부드러운 사파이어 블루 악어 스트랩이 조화롭다. 문의 02-542-6622

로진 하이드로콰레스트 하이드로콰레스트 라인에 올 블랙 세라미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스포티한 시계 디자인에 잘 어울리게 스크래치에 강하다. 수심 300m 방수 가능. 이중 잠금 버튼, 셸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등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다. 문의 02-310-1597



한 배틀리 다이아몬드 파베 링. 상단에 위치한 골드 톤에 서로 다른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앙갯 효과를 더했다. 옐로·화이트·로즈 골드, 37지 골드 소재로 만들 수 있다. 문의 1668-1906

불가리 세로펜티 바이퍼 웨딩 밴드 풍요와 영원을 상징해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인기 높은 세로펜티 바이퍼 웨딩 밴드. 하지만 포인트로 착용해도 좋지만, 여러 개를 겹겹이 착용해 감각적인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도 이 주얼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4mm, 6mm, 27지 두께로 남녀 모두 착용하기에 부담이 없으며 다이아몬드 외에도 컬러 젬스톤을 세팅한 버전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56-0170

다이나미 벨레포크 슬러퍼 링 화려했던 프랑스 벨레포크 시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매력적인 벨레포크 컬러 선 웨딩 슬러퍼 링은 독특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이다. 파베 세팅한 밴드가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서 오라도록 반짝일 것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515-1924

IWC 포르투기저 오 토메틱 클래식한 디자인 덕분에 시계가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타임피스 중 하나인 포르투기저 오 토메틱이 다가오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시계로 입성한다. 1930년대에 선보인 오라자블 포르투기저의 고전적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포르투기저 오 토메틱 버전이 다이얼 모델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낸다. 문의 02-3440-5876



5 몽클레르 크레이그 그린 론칭 올레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몽클레르 자니에서 2020 칼렉션 5 몽클레르 크레이그 그린을 론칭했다.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은 견고한 조경량 패브릭인 마이크로 린 스텝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 독특한 칼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5 몽클레르 크레이그 그린 커머셜 버전은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4-0900

보타가 베네타 BV 부츠 매우 가볍고 방수도 가능한 지속 가능 소재로 만든 것이 특징인 BV 부츠 부츠는 비 올 때 신는 장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동그란 발끝과 발목 높이기 오는 길이, 젤리처럼 말랑한 느낌이 귀엽다. 블랙, 폰테인, 러브, 롤라프, 키위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했으며 남녀 공용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7682

보스 맨 2020 F/W 칼렉션 보스 제-레이션을 메인 콘셉트로 1백 년 동안 이어온 브랜드 유산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와 문화, 삶의 방식을 표현했다. 방수 기능이 있는 이탈리아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아우우에 브랜 제품이다. 문의 02-2056-9023

펜디 파카부 아이씨유 이스트웨스트 백 2020~2021 F/W 여성 칼렉션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된 파카부 아이씨유 이스트웨스트 백. 단조롭고 부드러운 선이 돋보였던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직선적인 선과 이코디언 프레임의 조화가 돋보이는데, 결면에는 스가죽 소재를, 안쪽에는 앙가죽 소재를 썼다. 내부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02-2056-9023



자렌시 르 루즈 딘 벨렛 보송한 미꾸라같이 매력적인 르 루즈 딘 벨렛은 기존에 출시했던 르 루즈 라인 팔레트에 새로운 8가지 세트와 17가지 미디트 에디션을 추가해 총 15가지 세트가 되었다. 한 번만 발라도 강하게 올라오는 발색력과 12시간 지속되는 롱스테이팅 효과, 풍부한 향과 버디 스텝을 함유한 포물라로 텍스처가 부드럽다. 문의 080-801-9500

실론 투스웨이브 고추마에치 기술로 극대 효과를 발휘해 치태와 차를 감소시키고 치아 착색 및 얼룩을 제거해주는 투스웨이브. 칫솔 제거는 물론 잇몸 건강까지 관리 가능한 구강 관리 솔루션이다. 문의 02-6905-3472

발렌티노 기라버니 아틀리에 03 로즈 에디션 장미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틀리에 03 로즈 에디션은 꽃잎을 형상화한 가죽 소재 슬리퍼이다. 입체감과 생동감이 느껴져 활활하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뽐내는데, 90여 가지 달하는 가죽 꽃잎을 정교한 공예 기술로 하나하나 지수와 수작업으로 표현해 소장 가치가 높다. 블랙, 레드, 체리, 37지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2-2051-4652

미우미우 노바 스니커즈 브랜드 대표 가죽 소재인 마테리페를 모티브로 만든 고무 밑창의 정교한 잔물결 줄무늬 디테일과 볼륨감이 돋보인다. 마그라아 스트레치와 마테리페 가죽 등 특유의 부드러운 소재에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을 더했다. 문의 02-3218-5331

시몬스 웨딩 프로포즈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리지킹(키), 킹오브킹(키) 사이드 매트리스 구매 시 할인, 특정 매트리스 모델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대 프레임과 러그 세트도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다양한 시몬스 상품도 선택권으로 증정한다.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1899-8182



CHANEL.COM

CHANEL